

롯데마트 여수점 주차장내 주유소 설립 강행

이마트 순천점도 건축 허가 조만간 착공 “대기업 알뜰 상혼” 동네 주유소들 반발

대형유통업체들이 골목상권 침해에 따른 사회의 따가운 눈길과 상인들과 분쟁을 피하기 위해 우회입점 등 변칙운영을 하고 있는 가운데 롯데마트와 이마트가 여수와 순천에 각각 주유소 운영을 준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주유소협회는 “정부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상생을 강조하는 시점에서 대기업들이 주유소 운영을 강행하고 있는 것은 업계는 물론 지역 상권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롯데마트 여수점은 지난 2월 여수시에 주차장 착공계를 내고 국동 여수점 주차장 부지에 셀프주유소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당초 이 부지는 롯데마트가 지난 2009년 주유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가 부지 적정성 여부와 기존 주유소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집단민원으로 불허된 뒤, 지난해 행정소송 승소 판결

후 재 신청해 착공에 들어간 상태다. 하지만 롯데마트 여수점의 셀프주유소 운영과 관련 주유소협회와 지역 주민들은 설치 기준 위반과 상권 장악 음모라며 불쾌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주유소협회 관계자는 “주유소를 설치하기 위해선 4차선 도로변이어야 하고 주변에 주택이 없어야 하는 등 강력한 기준이 있지만 롯데마트 주유소는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채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일각에서는 대형마트의 주유소 영업이 기름 판매가 목적이 아닌 마트 고객 유치 위한 미끼 차원이라는 분석을 내 놓고 있기도 하다.

인근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정모(42)씨는 “싼 가격과 소량까지 즐길 수 있는 장점 때문에 손님이 몰리면 인근 주유소는 물론 전남 서남권 지역의 주유소 매출에 영향을 미친다”며 “어려운 경제사정에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 주유소들이 다 죽게 생겼다”고 하소연했다.

해당 지자체도 롯데마트의 주유소 개점에 대해 손 쓸 방법이 없는 상태다. 행정소송에서 판결이 난 상태이고 등록요건을 갖춰 허가된 사안이기 때문에 마땅한 대책을 내 놓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수시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

해 어쩔 수 없는 입장”이라며 “적당한 기준에 따라 신청돼 허가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롯데마트 측은 “주유소 운영 목적이 고유가 시대에 마트를 찾는 고객들에게 안정된 가격에 기름을 공급하려는 편의 차원”이라며 “이미 공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주유소 설치를 중단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마트 순천점은 지난 3월 순천시에 주유소 건축 및 개발 행위 허가를 얻었고 덕암동 주차장 부지에 조만간 주유소 운영을 위한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여수=김창희기자 chkim@

금호타이어 2년 연구 개발 ‘와트런’ 르노삼성 전기차 전용 타이어 공급

금호타이어(대표 김창규)가 10일 오후 10월부터 2018년까지 5년간 르노삼성 전기자동차에 전기차(Electric Vehicle) 전용 타이어(사진)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금호타이어는 2년간의 연구 개발을 통해 르노삼성의 100% 순수 전기차 ‘SM3 Z.E.’에 단독으로 공급하게 됐으며 규격은 205/55/R16이다.

SM3 Z.E.는 국내 최초로 양산 및 판매에 들어가는 준중형급 전차로 운행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전혀 없는 무공해 차량이다. 이 차는 1회 충전만으로 123km(신연비 기준) 이상을 주행할 수 있으며 감속하거나 내리막길을 주행 시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수, 배터리를 재충전하는 회생 제동 시스템까지도 갖춘 ‘그린카’라고 금호타이어는 설명했다.

금호타이어는 이번 공급을 계



기로, 국내 업계 최초의 전기차 전용 타이어 브랜드 ‘와트런(WATTRUN)’을 론칭하고 본격적인 출시에 나설 계획이다.

박상표 금호타이어 OE개발팀장은 “와트런”은 전기차에 맞는 저소음과 컴포트(Comfort) 기술을 적용하고, 재료 측면에서도 고성능과 경량화를 동시에 구현했다”며 “친환경 자동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만큼 금호타이어는 지속적인 투자와 제품 개발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농업인 행복시대 우리손으로” 전남농협 여성복지담당자 100여명은 지난 9일 신안군 증도면 엘도라도리조트에서 ‘나눔의 손길로 농업인 행복시대 우리가 열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완도 해조류국제박람회 광주銀 입장권 판매약정

광주은행(은행장 송기진)과 완도군(군수 김중식)은 10일 오후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홀에서 개최된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D-365 성공기원 한마음 대회’에 참석해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권 판매약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광주은행은 ‘2014완도국제해조류박람회’ 후원은행으로서 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한 입장권 10만매 판매를 달성해 입장권 판매 범주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여수엑스포와 오는 20일 개최되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서 적극적인 입장권 판매



로 범-업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어 해조류박람회 입장권 판매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광주은행은 잇따라 펼쳐지는 대규모 국제행사의 공식후원은행으로 선정돼 지역 국제행사 성공개최에 앞장서고 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금융위기 이후 가정 식탁 급속 부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서 가정의 식탁이 빠른 속도로 부실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금융투자업계와 통계청 국가정보포털에 따르면 전국 2인 이상 가구의 실질 가계수지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식료품·비주류음료 구입비는 가구당 월평균 31만668원으로 집계됐다. 2008년 34만1472원에 비해 9.0% 줄어든 금액이다.

개별 항목별로는 건강식품으로 분류되는 생선과 과일, 해조류 등의 소

비가 급감한 반면 햄과 베이컨 등 육류가공품과 빵, 과자류 소비는 급증했다. 어패류 등 신선수산물 소비는 2004년 이후 가구당 월평균 2만8000원선 내외를 오갔지만 2008년 2만7685원을 기점으로 급감해 2012년에는 1만9140원으로 30.9%나 쪼그라들었다.

염수산산물과 기타수산물가공품 소비도 같은 기간 각각 19.8%와 11.0%씩 감소했다.

감소세인 당류 및 과자류 소비는 금융위기 이후 증가세다. /연합뉴스

작년 광주·전남 상장사 배당금 209억

전년 보다 1.58% 감소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배당금 총액은 209억원으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12월 결산법인 14곳 중 현금배당을 하는 7개사를 대상으로 배당 현황을 집계한 결과 당기순이익은 1086억원으로 전년보다 2.46% 증가했고 배당금총액은 전년 보다 1.58% 감소한 209억원이었다.

당기순이익에서 배당금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배당성향은 19.26%로 전년보다 0.79%p 감소했다. 지난해 당기순이익과 배당금수준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배당금총액은 전년 12억8000만원 보다 11.48% 감소한 11억4000만원이며, 이는 전체 배당금총액의 5.42%를 차지했다.

전체 배당금 중 외국인 비중은 외국인 보유비중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전년 보다 0.61%p 감소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카드·할부금융 금리 표준화로 인하 유도

금융당국이 신용카드·할부금융사의 대출금리와 할부금리 체계를 표준화해 금리 인하를 유도한다.

금리 산정의 바탕이 되는 회원등급 책정 방식을 바꾸는 게 핵심이다. 업계 공통의 신용등급 도입도 신중히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 카드·할부금융사의 금리 산정과 신용등급 평가 체계를 개편하고 금리 비교공시를 강화하는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최근 업계, 학계와 테스크포스(TF)를 꾸렸다.

카드·할부금융사는 저마다 고객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회원등급을 매겨 대출금리를 정한다. 그런데 회원등급(신용등급) 체계가 6~12개로 회사마다 제각각이어서 부당하게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해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다고 금융당국은 지적했다.

‘금리 합리화’ 대상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을 비롯해 리빙빙(revolving·대출금 일부만 갚고 나머지는 상환을 유예하는 상품)과 할부 등 카드·할부금융사가 취급하는 거의 모든 사업이다.

현금서비스는 연 24~28%, 카드론은 16~20%, 리빙빙은 22~30%, 할부(무이자 제외)는 14~18%로 금리

가 비교적 높은 편 아니라 회사별로 차이가 크다. 카드대출 시장은 지난해 현금서비스 75조원, 카드론 24조7000억원으로 99조7000억원이다.

TF는 금리 산정에 직결되는 신용등급 체계 개편안도 만든다. 신규 고객에 적용되는 ‘신청평점시스템’과 기존 고객에 적용되는 ‘행동평점시스템’이 개편 대상이다.

TF에서는 업계 공통의 신용등급 산정 체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다만, 지나치게 획일화하면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데다 회사의 영업 기밀이 알려지게 될 우려도 있어 신중하게 논의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 코스피지수 1935.58 (+14.84)	▲ 코스닥지수 534.84 (+6.69)	▼ 금리(국고채 3년) 2.48% (-0.01)	▼ 원·달러 환율 1135.70원 (-3.70)
-----------------------------	---------------------------	-------------------------------	-------------------------------

새로운 패러다임의 거침없는 뉴스쇼

TV조선 뉴스쇼

광

월~금 밤 9시 50분 방송

대한민국 어디서나 채널 19번 TV조선

박은주 조선일보 문화부장 최희준 TV조선 취재에디터 김미선 TV조선 정치부 기자